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3. 21. ~ 03. 27.

# 전남농업정보

77  
VOL

## 주간 기상전망

## 농작물 재배 동향(관측정보)

· 3월 과채 가격동향 및 전망 (딸기·토마토·오이 등)

##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맛” 보성녹차당면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참다래 인공수분용 현탁액 제조 기술이전
- 온실가루이 잡는 친환경 방제제 개발

## 정책동향

· aT, 2016년 농수산물 도매시장자금 융자 지원

## 해외 농업정보



전라남도  
JeollaNamdo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4mm)보다 적겠음

###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8

- ▶ 3월 과채 가격동향 및 전망 (딸기·토마토·오이·고추·수박 등)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2

- ▶ 나주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대폭 확대
- ▶ 담양에서 생산한 친환경 축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 고흥군, 전국 최초 노지벼 2기작 “첫 모내기”
- ▶ 화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에도 문 활짝
- ▶ 강진군, 농업 경영비절감 위한 토양검정서비스 무료제공
- ▶ 해남군, 식량안정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병해충 방재비 지원
- ▶ 함평군, 농작업 환경개선 등 국비사업 본격 추진
- ▶ 장성군, 과수 화상병 긴급차단 전력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21

- ▶ “쫄깃쫄깃 탕글탕글한 맛” 보성녹차당면
- ▶ 닭고기 · 오리고기 홍콩 수출 재개
- ▶ 양주골 참새벽 딸기, 4년 연속 동남아 수출 쾌거
- ▶ 봉화사과, 글로벌 GAP 인증 획득 성공
- ▶ 불로초 한라봉, 서남아시아 진출

##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6

- ▶ 참다래 인공수분용 현탁액 제조 기술이전
- ▶ 온실가루이 잡는 친환경 방제제 개발
- ▶ 경영기록장 사업으로 농업 생산비절감 나섰다
- ▶ 소 발정 관찰도 ICT 기기로 편하게~
- ▶ 개화기 빠른 플럼코트, 인공수분 하면 수확량도 늘어
- ▶ 배 과원, 석회유황합제 뿌려 초기 병원균 잡으세요
- ▶ 감자 역병균 유전정보 분석... 방제 · 저항성 품종 육성 효율 높여
- ▶ 농가 보급형 수확후 처리 시설, GAP 인증률 제고 · 소득증대 한몫

## ❁ 정책 동향 ..... 37

- ▶ aT와 지역 거점대학, 농산물유통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 ▶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불법 · 불량 묘목 집중 단속 실시
- ▶ 농식품부, 간척농지 논벼 외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준다!

▶ 베트남서 우리 농식품 호감 지속 상승

▶ 미국, 끝나지 않은 유기농시장 열풍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3.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다음 주 미 평야의 기후 개선 전망으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에서 차익실현을 위한 숏커버링세가 몰려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 달러 강세와 재고량 증가 전망으로 인해 하락하였음.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재고량 증가 전망으로 가격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브라질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수요 증가 기대감이 가격 하락을 상쇄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2015년산 콩 등 우량종자 지금 신청하세요

▶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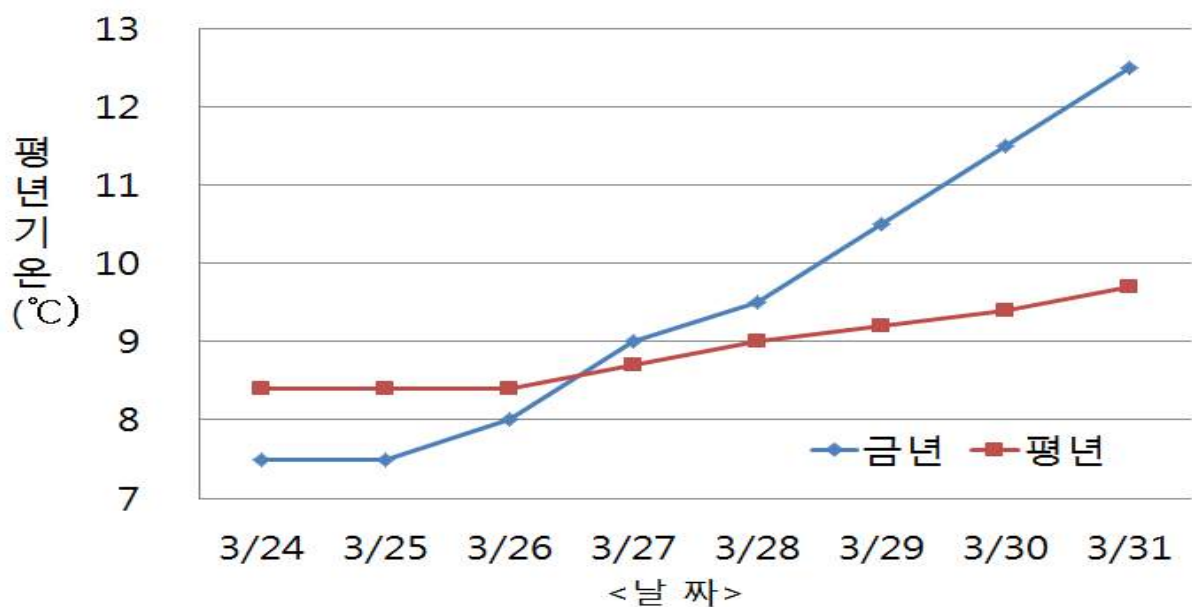
▶ 농식품 분야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추진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9.5	8.9	0.6	15.1	15.0	0.1	3.9	3.8	0.1	1.7
3. 24.(목)	7.5	8.4	-0.9	13.0	14.1	-1.1	2.0	3.6	-1.6	2.6
3. 25.(금)	7.5	8.4	-0.9	13.0	14.2	-1.2	2.0	3.5	-1.5	2.3
3. 26.(토)	8.0	8.4	-0.4	14.0	14.3	-0.3	2.0	3.4	-1.4	1.8
3. 27.(일)	9.0	8.7	0.3	15.0	14.9	0.1	3.0	3.5	-0.5	1.2
3. 28.(월)	9.5	9.0	0.5	15.0	15.3	-0.3	4.0	3.7	0.3	1.1
3. 29.(화)	10.5	9.2	1.3	16.0	15.5	0.5	5.0	3.9	1.1	1.1
3. 30.(수)	11.5	9.4	2.1	17.0	15.7	1.3	6.0	4.2	1.8	1.6
3. 31.(목)	12.5	9.7	2.8	18.0	16.0	2.0	7.0	4.4	2.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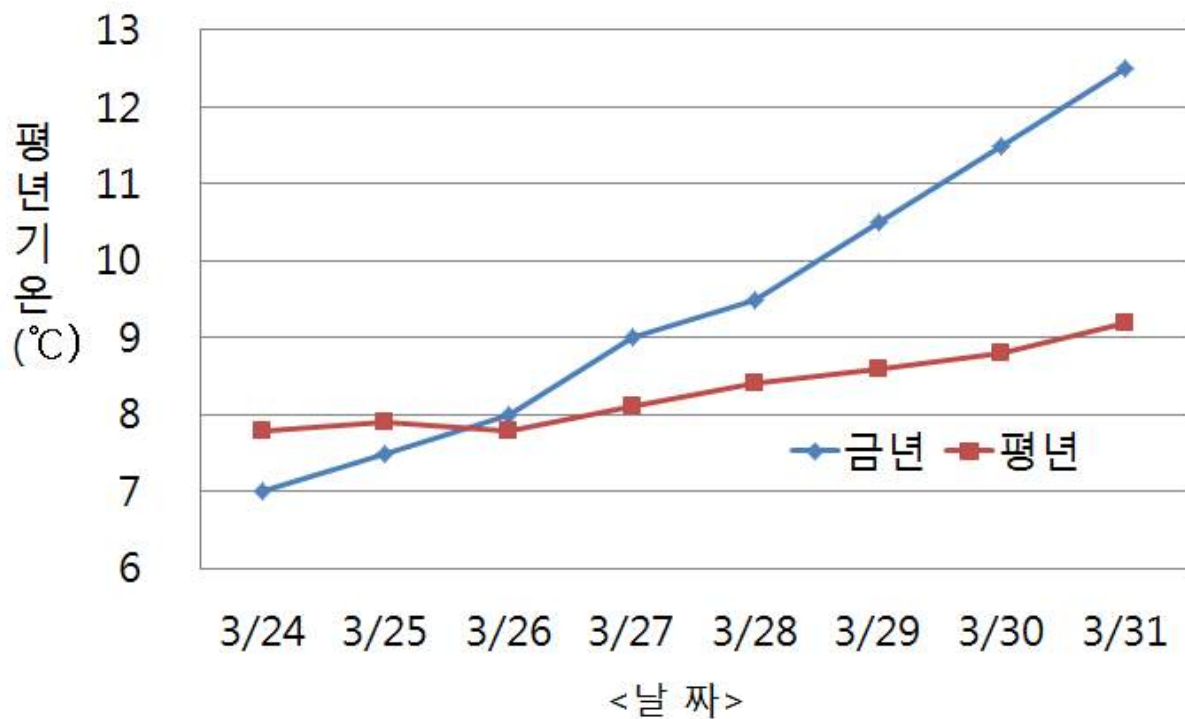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9.4	8.3	1.1	14.0	13.7	0.3	4.9	4.4	0.5	1.6
3. 24.(목)	7.0	7.8	-0.8	11.0	13.0	-2.0	3.0	4.0	-1.0	2.4
3. 25.(금)	7.5	7.9	-0.4	12.0	13.0	-1.0	3.0	4.0	-1.0	2.2
3. 26.(토)	8.0	7.8	0.2	13.0	13.0	0.0	3.0	3.9	-0.9	1.6
3. 27.(일)	9.0	8.1	0.9	14.0	13.6	0.4	4.0	4.1	-0.1	1.1
3. 28.(월)	9.5	8.4	1.1	14.0	14.0	0.0	5.0	4.3	0.7	1.0
3. 29.(화)	10.5	8.6	1.9	15.0	14.1	0.9	6.0	4.6	1.4	1.1
3. 30.(수)	11.5	8.8	2.7	16.0	14.3	1.7	7.0	4.8	2.2	1.6
3. 31.(목)	12.5	9.2	3.3	17.0	14.7	2.3	8.0	5.1	2.9	2.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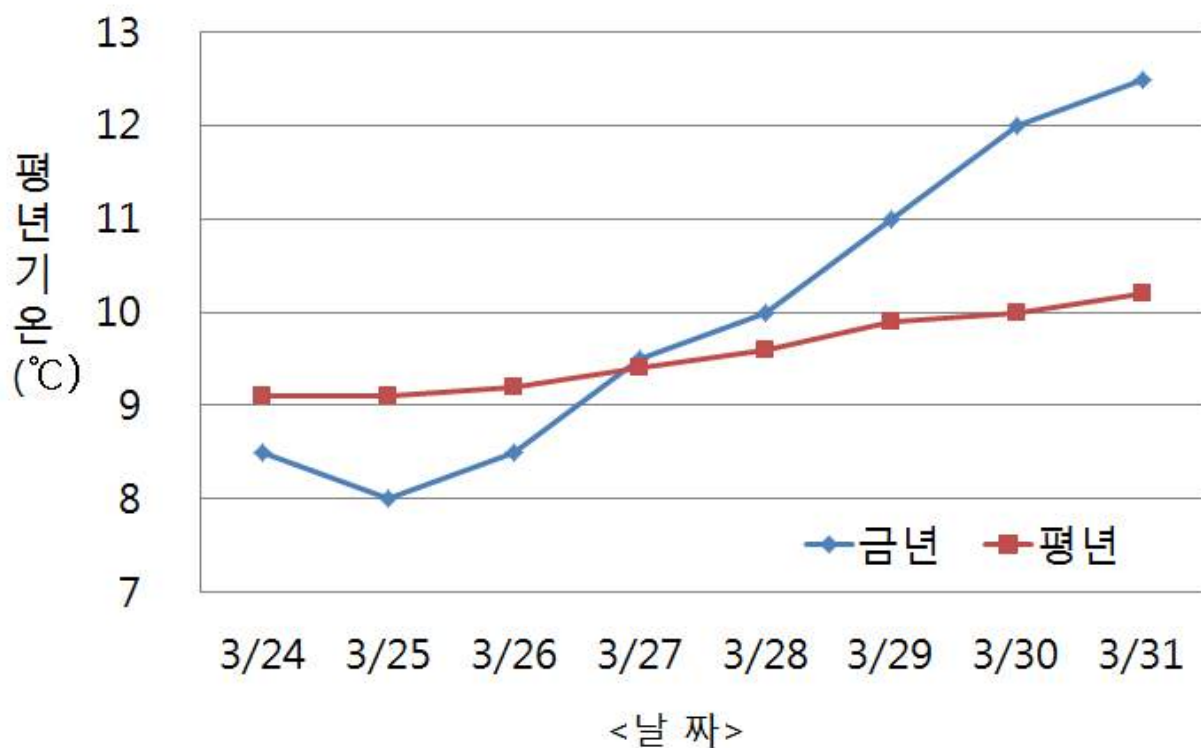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0.0	9.6	0.4	14.1	13.8	0.4	5.9	6.1	-0.2	2.2
3. 24.(목)	8.5	9.1	-0.6	12.0	13.0	-1.0	5.0	5.8	-0.8	2.6
3. 25.(금)	8.0	9.1	-1.1	13.0	13.2	-0.2	3.0	5.8	-2.8	2.5
3. 26.(토)	8.5	9.2	-0.7	13.0	13.4	-0.4	4.0	5.7	-1.7	1.8
3. 27.(일)	9.5	9.4	0.1	14.0	13.6	0.4	5.0	5.9	-0.9	1.5
3. 28.(월)	10.0	9.6	0.4	14.0	13.8	0.2	6.0	6.2	-0.2	1.6
3. 29.(화)	11.0	9.9	1.1	15.0	14.2	0.8	7.0	6.3	0.7	1.9
3. 30.(수)	12.0	10.0	2.0	16.0	14.3	1.7	8.0	6.4	1.6	2.6
3. 31.(목)	12.5	10.2	2.3	16.0	14.6	1.4	9.0	6.6	2.4	3.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 3월 과채 가격동향 및 전망

☐ 풋고추·참외를 제외한 과채류 3월 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딸기·토마토·오이·애호박 3월 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딸기 3월 가격은 상품 2kg에 1만 5천~1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듯
- 일반토마토 3월 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6천~1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
- 대추형 방울토마토 3월 가격은 상품 3kg 상자에 1만 6천~1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듯
- 원형 방울토마토 3월 가격은 상품 5kg에 2만 2천~2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
  - 원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많으나, 소비대체관계인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량 감소와 대형유통업체에서의 판촉행사로 인해 가격 상승
- 백다다기오이 3월 가격은 상품 100개에 4만~4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
- 애호박 3월 가격은 상품 20개에 2만~2만 2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



## ❑ 풋고추·참외 가격은 작년보다 낮게 형성될 전망

- 청양계 풋고추 3월 가격은 상품 10kg에 6만 5천~7만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듯
- 녹광풋고추 3월 가격은 상품 10kg에 4만~4만 5천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참외 3월 가격은 출하량 많아 상품 10kg에 5만~5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듯

## ❑ 3~4월 정식면적 전망

- 일반토마토·원형 방울토마토·오이(백다다기·취청)·풋고추(청양·녹광) 3~4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
- 애호박 3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증가, 4월은 비슷할 듯
- 수박 3~4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감소,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증가 전망

## ❑ 과채류 3~4월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일반 토마토	원형방울 토마토	대추형방울 토마토	백다다기 오이	취청 오이	애호박	청양계 풋고추	녹광 풋고추	시설 수박	노지 수박
3월	0.1	-0.2	0.6	-0.3	-0.4	0.6	-0.4	-0.3	-1.6	-
4월	0.1	-0.3	0.5	0.4	-0.1	0.2	0.3	0.2	-0.7	-1.0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3. 2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21)	1주일전 (03/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0,800	42,133	↓ 11.3	↓ 14.1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6,000	182,133	↑ 10.3	↓ 17.6
	고구마(밤)	10kg	26,800	27,200	27,000	28,250	27,243	↓ 5.1	↓ 1.6
	감자(수미)	20kg	31,800	33,200	30,800	35,100	27,780	↓ 9.4	↑ 14.5
채소류	배추(월동)	1kg	1,200	1,160	900	503	895	↑ 138.6	↑ 34.1
	양배추	10kg	7,500	6,900	6,275	6,125	6,775	↑ 22.4	↑ 10.7
	오이(다다기계통)	10kg	36,333	36,000	38,583	25,667	32,422	↑ 41.6	↑ 12.1
	애호박	8kg	27,400	28,400	29,350	22,250	23,563	↑ 23.1	↑ 16.3
	토마토	10kg	39,600	42,400	30,050	30,850	33,656	↑ 28.4	↑ 17.7
	당근	20kg	25,200	24,600	25,000	20,900	25,967	↑ 20.6	↓ 3.0
	건고추(화건)	60kg	780,000	780,000	780,000	820,000	870,667	↓ 4.9	↓ 10.4
	풋고추	10kg	51,000	46,200	75,050	71,400	65,240	↓ 28.6	↓ 21.8
	마늘(깐마늘)	20kg	163,000	163,000	162,000	107,200	117,760	↑ 52.1	↑ 38.4
	양파	20kg	32,600	32,600	32,200	12,950	15,895	↑ 151.7	↑ 105.1
	대파	1kg	2,560	2,960	3,195	1,515	1,781	↑ 69.0	↑ 43.7
	파프리카	5kg	27,200	27,400	28,900	27,250	29,877	↓ 0.2	↓ 9.0
	멜론	8kg	29,400	28,600	26,700	27,100	42,292	↑ 8.5	↓ 30.5
	방울토마토	5kg	30,000	33,800	21,400	18,950	26,413	↑ 58.3	↑ 13.6
	수박	1개	19,200	19,000	16,525	15,550	15,945	↑ 23.5	↑ 20.4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7,000	37,000	37,450	41,600	51,867	↓ 11.1	↓ 28.7
	배(신고)	15kg	44,000	44,000	45,600	39,800	46,324	↑ 10.6	↓ 5.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3/21)	1주일전 (03/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28,000	568,933	↑ 0.2	↓ 7.0
	느타리버섯	2kg	11,800	11,600	9,400	12,150	11,553	↓ 2.9	↑ 2.1
	새송이버섯	2kg	9,000	9,000	8,700	8,650	8,737	↑ 4.0	↑ 3.0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67	8,165	8,101	6,438	6,079	↑ 23.7	↑ 31.1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74	1,888	1,868	1,877	1,798	↓ 0.2	↑ 4.2
	닭고기	1kg	5,584	5,535	5,147	5,579	6,319	↑ 0.1	↓ 11.6
	계란(특란)	30개	5,347	5,235	5,462	5,906	5,676	↓ 9.5	↓ 5.8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61	- 0.0	↑ 8.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3. 21.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32 천원	5,769 천원	4,147 천원	↑ 1.1	↑ 40.6
	거세	6,753 "	7,137 "	5,333 "	↓ 5.4	↑ 26.6
송아지 (6~7월)	암	2,882 "	2,693 "	1,479 "	↑ 7.0	↑ 94.9
	수	3,468 "	3,271 "	2,093 "	↑ 6.0	↑ 65.7
육우(600Kg)		3,619 "	3,684 "	3,547 "	↓ 1.8	↑ 2.0
젖소수송아지(7일령)		232 "	207 "	94 "	↑ 12.1	↑ 146.8
돼지(110kg)		363 "	345 "	371 "	↑ 5.2	↓ 2.2
육계(원/kg)		1,420 원	1,342 원	1,863 원	↑ 5.8	↓ 23.8
계란(원/특란10개)		925 "	939 "	1,250 "	↓ 1.5	↓ 26.0
오리(원/kg)		1,667 "	1,667 "	2,500 "	-	↓ 33.3

※ '14년 경매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나주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대폭 확대

- 자체사업비 4억 5천만원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 172농가로 대폭 늘려 -

- 나주시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수요를 적극 반영, 올해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자체사업은 199농가가 신청했으나 35.2%인 70동 지원에 그쳐, 올해는 시 자체사업 기준으로 150동에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보조사업(22동)까지 포함해 172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은 2ha미만 소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동당 6백만원 중 3백만원을 지원해 9.9~33m<sup>2</sup>의 컨테이너·판넬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과수·채소 등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 조절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 나주시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 자체 사업으로 2013년 40동, 2014년 60동, 2015년 75동, 2016년 150동 등 꾸준히 지원을 늘려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22동 14억 4천 4백여만원을 지원하였다.
- 한편, 견실시공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업체를 공모하여 7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15일 오후 3시 나주시청 제2청사(왕곡면 나주배 테마파크)다목적 강당에서 '2016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대상농가와 시공업체, 관계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지침 설명 및 업체의 제품설명 등이 이루어졌고, 농가와 시공업체간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채진광 소장은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많은 요구에 따라 향후 지원 계획을 늘려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나주시

## ■ 담양에서 생산한 친환경 축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담양군,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무 교육 실시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 -

- 담양군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주력함과 동시에 안전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 수요에도 부응하고 있다.
- 군에 따르면, 최근 양돈 및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친환경 축산물 인증 실무교육을 실시한 데에 이어 16일 담양축협 회의실에서 한우 축산농가 및 축산업계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에는 국립환경대학교 친환경인증센터의 이길연 팀장이 초빙돼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의 종류 △친환경 축산물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인증 표시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친환경 축산물인증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뤘으며, 특히 한우 농가가 인증신청서 및 친환경 인증품 생산계획서 작성요령 등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 강경원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은 “친환경에 기반한 축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대안”이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교육에 매진해 친환경인증 농가를 확대하는 등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군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한우·양돈·낙농·산란계(육계)·오리 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출처 : 담양군

## ■ 전국 최초 노지벼 2기작 “첫 모내기”

- 3년 연속 2기작... 일반재배 대비 156% 소득 올려 -

-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전국 최초 노지벼 2기작 첫 모내기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강면 소재 죽암농장(대표 김종욱)에서 포트육묘 이앙기를 이용해 극조생종 “기라라 397” 품종을 비닐 하우스가 아닌 노지 5.3ha에 모내기를 했다.
- 이는 작년보다 5일 빠른 지난 2월 11일 범씨를 파종해 34일 만에 포트육묘 기법으로 모내기한 것으로 오는 7월 20일경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포트육묘는 모 한 포기 한 포기가 포트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앙할 때 뿌리 손상이 적고 육묘기간이 길어 추위에 강하며 활착이 빨라 수확량이 증가 된다.



- 대규모 간척지를 보유하고 축산업과 함께 순환유기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죽암농장은 오는 6월 20일까지 두 달간 130ha에 모내기를 해 조생종 고시히까리와 중만생종 새누리·죽암벼·백옥찰벼 등을 재배하여 ‘金세기 쌀’브랜드로 출하한다.
- 특히, 2기작 재배가 성공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면 농지이용률 제고는 물론 초저비용 쌀 생산이 가능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해 10a당 1기작 ‘기라라 397호’는 정곡 422kg, 2기작 ‘청백찰벼’는 391kg을 수확하여 168만 5천원의 소득의 소득을 올리며 일반재배 농가 소득 대비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 관계자는 “금년을 포함해 총 3년의 2기작 노지벼 재배 경험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품종과 재배 매뉴얼을 확대 보급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 ■ 화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에도 문 활짝

- 3월 12일부터 11월 31일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 이번 휴일 근무는 그동안 휴일에 농기계를 임대 하고 싶었던 겸업농과 주말에 도시 자녀들에 도움을 받고 싶었던 고령층 농업인은 물론이고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11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실시한다.

- 화순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능주면 본소와 동북면 분소 2개소로 운영되며 트랙터 및 농용굴삭기 등 63종 352대로 2009년에 개소한 후 임대전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임대실적이 좋은 농기계 5종 8대를 올해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농가에 불편함이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화순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귀농·귀촌 농가들에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가에서 일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농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 비용절감과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영농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화순 군민 누구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가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명품화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업기계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화순군농업기술센터로 전화(061-379-5465) 문의하면 농기계를 쉽게 임대 할 수 있다.

\*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 경영비절감 위한 토양검정서비스 무료제공**

- 영농철 접어들기 전 지금이 토양검정 적기 -

- 전남 강진군은 논에 투입되는 비료량을 줄여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사에 적합한 최적의 토양상태 유지를 위한 토양분석 무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진군이 추진하는 무료 토양분석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인산·칼리 및 기타 양이온 등의 양분 함량을 분석하고 토양에 필요한 양분과 작물별 적정 비료사용량을 추천하는 사업이다.
-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비료사용 추천량 보다 화학비료를 과다 투입해 병충해 발생, 웃자람, 광환경 조건 악화로 농산물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경영비 과다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친환경을 위해 적정 비료사용이 중요하다.
- 올해 농업기술센터의 무료 토양분석 목표량은 약 5,000점으로 친환경, 직불제, 주요작목 재배지, 자체검정 등의 세부 분석사업을 추진한다. 정확한 토양분석을 위해서는 비료와 작물이 투입되기 전인 영농철 전에 토양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올해부터 친환경 농경지 토양분석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해서 접수 받고 있다.
- 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담당자는 “토양검정은 사람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토양분석은 본인이 농사짓는 토양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므로 과학적 영농을 위해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출처 : 강진군

## ■ 식량안정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병해충 방제비 지원

-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모판 및 본답초기 상자처리제 처리로 노동력 및 방제비 절감을 위하여 2016년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선정 심의회를 가졌다.



-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애멸구·도열병 등 본답 초기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을 예방 위주 방제로 피해를 줄여 식량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올해 12억 5천만원(보조 80, 자부담 20%)의 사업비를 들여 19,736ha에 방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해남군은 공급가능 약제를 조사한 결과 4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후 읍면 방제협의회를 통해 약제를 선정하여 못자리 설치시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약제공급을 통하여 농촌의 노동력 및 경영비절감 뿐만 아니라 초기 병해충 사전에 예방하여 올해도 풍년농사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 ■ 함평군, 농작업 환경개선 등 국비사업 본격 추진

- 국비 2억원 투입해 농촌건강장수마을, 편의장비 지원 등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농작업 환경개선 등 2016년도 국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비 2억원을 투입해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1곳, 편의장비 지원 2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한다.
- 농작업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 농업생산성과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작업에 따른 질환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업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군 관계자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높여 농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과 함께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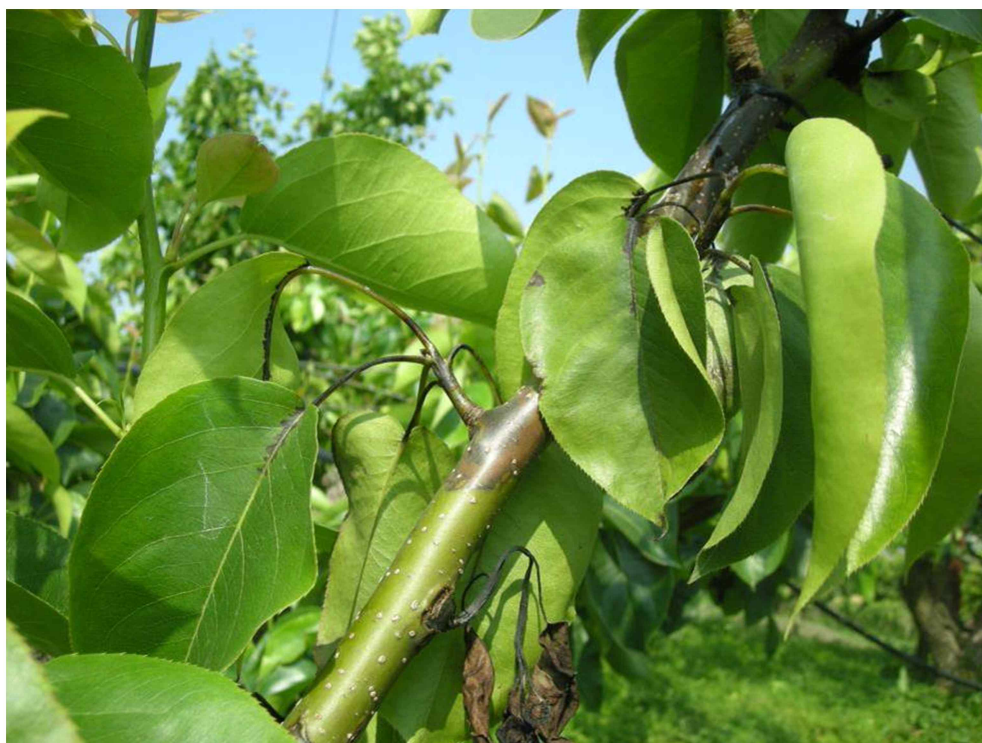
\* 출처 : 함평군

## 장성군, 과수 화상병 긴급차단 전력

- 사과·배 과수농가 화상병 예방 교육실시....250ha 분량 전용약제 공급 -
- 장성군이 나무 메스르라고 불리는 전염병 ‘과수화상병’ 긴급차단에 나섰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한 긴급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과수화상병은 지난해 경기도 지역에서 처음 발병한 과수 전염병으로 꽃과 줄기가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검게 변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한번 화상병이 발생하면 주변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사과·배나무를 토양에 깊이 묻어야하고 향후 5년 동안 관련 과수를 재배할 수 없는 등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 이에 군은 화상병의 원천적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30농가를 소집해 긴급교육을 실시하고 250ha의 과수원에 사용할 예방 전용약제를 공급했다.

- 또한 중점방제기간을 정하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현장 방제 작업을 지도·감독하며 화상병을 예방할 계획이다.
- 이날 교육에 강사로 나선 농촌진흥청 김기수지도관은 "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배·사과·모과 등 장미과 식물을 말라 죽게 하고 고온에 전파속도가 빠른 병이므로 예찰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3월말부터 4월초 꽃피기 전에 전용약제를 적기에 살포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장성군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맛”

- 홍보용 보성녹차당면 출시 -

- 이용부 보성군수는 지난해 말 중국 산둥성 사수현의 산둥수정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대표 공봉)를 방문하여 보성녹차분말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 주요 협약 내용에는 보성군은 보성에서 생산한 유기농 녹차분말을 산둥수정생물과학기술 유한회사에 공급하고, 이 회사는 보성녹차 분말을 원료로 당면 제품을 개발·생산할 것을 협약했다.
- 이 수출협약으로 오랜 노력 끝에 유기농 보성녹차 분말을 이용한 당면이 개발 생산되었다.
- 이번 녹차당면은 유기농 녹차 5%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혈압저하 및 이뇨작용에 효과가 있는 가바성분 2%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보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인 ‘미미보’를 표시하여 출시된 제품이다.
- 또한 중국 산둥성 사수현의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보성군 방문단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녹차분말 생산 공장 시설물을 견학하고 양국간에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차산업 및 문화·경제 교류협력을 위해 상호간 우호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성녹차당면이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면 녹차 소비촉진으로 차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차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한편 보성군에서는 홍보용 보성녹차당면 출시를 기념하여 군청 구내식당에서 시식회를 열어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제품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 닭고기·오리고기 홍콩 수출 재개

- 고병원성 AI 청정국 회복으로 수출 가능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중단됐던 국산 신선 가금 제품의 홍콩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
-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홍콩 측이 지난해 5월부터 수입을 중단한 우리나라산 닭고기와 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에 대해 한국·홍콩 검역 당국이 협의를 거쳐 11일자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 이는 지난달 28일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홍콩 측에 수입 재개를 요청해 이뤄졌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AI 청정국 지위 회복 시점인 지난달 28일 이후 생산(부화)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용해 만든 신선 가금제품이면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 또한 2014년 5월 수출 중단 이전 홍콩 정부에 이미 등록된 전남 지역 수출 작업장 10개소 모두가 수출을 할 수 있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앞으로 전남산 가금제품이 홍콩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수출되도록 AI 재발 방지 및 수출 검역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 양주골 참새벽딸기, 4년 연속 동남아 수출 쾌거

- 지난달부터 태국·말련·인니에 설향 10톤 공급..6월 중순까지 총 30여톤 수출 예정 -

-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양주골 참새벽딸기’가 4년째 동남아 수출 길에 올랐다.
- 우호희 참새벽딸기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최근 “지난달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 양주골 참새벽딸기 10톤을 항공운송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 참새벽딸기 영농조합법인은 5개 딸기 농가가 참여해 2012년 만든 단체로, 2013년부터 4년째 태국과 홍콩·괌·일본·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딸기를 수출하고 있다.
- 참새벽딸기영농조합은 지난해 동남아시아시장에 32톤의 딸기를 수출해 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에도 오는 6월 중순까지 국산 품종인 ‘설향’ 30여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 우호희 대표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양주 참새벽딸기는 당도가 높은 데다 저장성도 뛰어나 해외에서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봉화사과, 글로벌 GAP 인증 획득 성공

- 51농가 85ha 인증...올해 100여 톤 이상 수출 계획 -

- 봉화군이 글로벌 갭(Global GAP) 인증을 통해 지역 사과의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봉화군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봉화사과 글로벌 GAP 인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최근 국제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51농가(재배면적 85ha)에서 생산한 봉화사과를 대구경북농금농협을 통해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러시아 등으로 100여톤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봉화군 관계자는 “FTA 체결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에 대응해 봉화사과 글로벌 GAP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지역 사과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향후 글로벌 GAP 인증 사과에 대한 수출마케팅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불로초 한라봉, 서남아시아 진출

- 1.5톤 항공운송 통해 카스피해 연안 아제르바이잔 첫 수출 -

- 제주 ‘불로초 한라봉’이 카스피해 연안 아제르바이잔 지역으로 첫 수출됐다.
- 이번 불로초 한라봉의 아제르바이잔 수출은 현지 상류층 공략을 목표로, 그간 한라봉 특유의 맛과 향, 모양을 홍보하는 등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얻은 성과다.



- 제주감귤농협은 지난 4일 당도 14°Bx 이상, 산도 1% 미만인 불로초 한라봉 1.5톤(5kg 300박스)을 항공운송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제주감귤농협은 지난해 제주 국제감귤박람회와 연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를 발굴했으며, 이번에 수출되는 불로초 한라봉의 농가 수취가격은 kg당 5,000~5,500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제주감귤농협 관계자는 “불로초 한라봉을 비롯해 지난해 수확한 만감류를 미국과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지에 항공운송으로 약 14톤을 직수출했다”며 “올해에는 20톤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참다래 인공수분용 현탁액 제조 기술이전

- 국산 인공수분용 현탁액의 실수요자 중심 공급과 생산비 절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자체 연구 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참다래 인공수분을 위한 물수분용 현탁액 제조 기술'을 (주)한국 참다래연합회로 기술이전 하였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전량 고가에 수입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던 것을 자체 개발하여 2005년 특허 등록한 바 있다. 참다래 인공수분 시 사용되는 현탁액이란 꽃가루의 활력을 높여주어 과일 비대 생장에 필요한 수분과 수정 효과를 높이는데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무기물의 특수조성물이다.
- 현재 도내 참다래 재배면적은 510ha에 달하며, 전국 생산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우위의 고소득 작물이다. 하지만 매년 5월이면 농민들은 참다래 고품질 안정생산에 필수적인 인공수분 작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고가의 외국산 현탁액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하지만, 자체 개발한 현탁액을 공급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인공수분 비용 경감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물수분 방법이 활성화 되어 참다래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이 현탁액을 공급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었으나, 도 농업의 자생력 강화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현탁액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의 참다래 생산자 단체로의 기술이전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과수연구소 조운섭 연구사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참다래 생산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하여, 도내 참다래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온실가루이 잡는 친환경 방제제 개발

- 전남도농기원, (주)바이오엔그린텍에 기술이전 협약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김성일 원장)은 시설재배 과채류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인 온실가루이와 식물기생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제를 개발해서 도내 친환경자재 생산업체인 (주)바이오엔그린텍에 기술을 이전하는 협약을 지난 11일에 체결하고 실용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 온실가루이는 시설재배 오이·참외·수박·멜론·딸기·토마토 등의 즙액을 빨아먹고 그을음을 남겨 수확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며, 식물기생선충은 이들 작물의 뿌리에 혹을 만들어 살면서 작물의 양분과 수분흡수를 방해함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시들게 하는 해충으로 시설재배작물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들이다.
- 온실가루이 방제제는 후추나무 열매추출물 등 3종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방제가 90% 이상으로 온실가루이에 대한 살충효과가 탁월하며, 식물기생선충 방제제는 란타나카마라 등 4종의 식물추출물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방제가 93%로 살충력이 뛰어나 이제 이들 해충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연구사는 시설재배 작물의 친환경 재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온실가루이와 식물기생선충이 이번에 개발된 두 제품을 이용하여 방제가 가능해 집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도 새롭게 문제되는 해충들에 대해서도 방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경영기록장 사업으로 농업 생산비절감 나섰다

- 농가 경영기록장 8종 개발·보급, 시범농가 204호 양성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경영기록장 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작목별 경영기록장 8종을 개발·보급하고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3월 1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농가들이 농사로 돈 되는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영농사항을 기록하고, 농사가 끝나면 기록한 내용을 분석해서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따라서 농업에 있어서 경영기록은 비용절감과 고소득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경영기록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 농사를 지어도 비용이 얼마나 소요 되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농사짓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손장환 연구사는 “농업인들이 경영기록을 하지 않아 농장의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고, 일부 농업인들은 생산원가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가격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농사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기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명확한 장래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에는 농산물 소득조사 경영기록장 기록농가,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참여농가,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소득조사 담당자 등 약 250명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생산 이력 기록관리 습관 정착을 위해 경영기록장 기록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 경영기록 우수농가들의 생생한 사례발표, 엑셀을 활용한 농장 경영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소 발정 관찰도 ICT 기기로 편하게~

- ICT 활용으로 번식효율 향상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ICT를 활용한 소 무인 발정 알림이 시스템교육을 14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당 사육 마릿수가 늘고 영양이 풍부한 사양관리로 발정이 약하게 와 수정시기를 놓치는 농가들을 위해 무인 자동발정알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였다.
- 한우와 젃소는 고능력우가 많아지면서 발정이 미약하게 나타나거나 야간 또는 새벽에 오는 비율이 높아져 발정 발견율과 수태율이 50~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소 사육농가에서 번식효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 무인 발정 알림이 시스템은 암소의 임신율을 높이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장치로 소 목에 센서가 부착된 목걸이를 채우고 축사에 설치된 무선 송신로 소의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컴퓨터에 개체별로 표시해 준다. 농가가 컴퓨터를 보면 어떤 개체가 발정이 왔는지 알 수 있다.
-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이 시스템이 도입, 운영 되면 소를 기르는 농가는 번식우 관리 노력절감과 수태율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개화기 빠른 플럼코트, 인공수분 하면 수확량도 늘어

- 서리 피해 예상 지역은 2회 이상 인공수분 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한 플럼코트(Plumcot) 새 품종의 안정적인 결실을 위해서 반드시 인공수분 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꽃 피는 시기가 빠른 전남 나주 등 남쪽 지역은 저온이나 서리 피해를 입으면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플럼코트는 2012년 전남 나주 지역에 처음 보급하기 시작해 올해 전국적으로 120ha이상 심을 예정이다. 또, 농업인과 소비자, 유통업체의 관심이 높아 당분간 재배면적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 플럼코트 새 품종은 꽃가루가 없어 수분수로 살구나무를 심어야 한다. 수분수를 심었어도 꽃 피는 시기에 온도가 떨어지면 방화 곤충이 거의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 달림이 좋지 않다.
- 이런 문제점은 수분수를 필요로 하는 많은 과일나무에서 발생하지만 플럼코트는 다른 과종에 비해 꽃가루가 없고 개화기는 많이 빠르기 때문에 인공수분을 해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 올해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는 플럼코트 ‘하모니’의 개화기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1~2일 정도 빨라진 3월 하순(전북 완주 기준)으로 예상된다.



‘하모니’ 품종



‘티파니’ 품종



‘심포니’ 품종

- 충실하게 잘 자란 플럼코트 나무의 경우 하나의 화속(꽃덩이)에 평균 15개 이상의 꽃이 무리를 이룬다. 이 가운데 2~3개의 꽃에 살구 꽃가루를 인공수분하면 10a 1,500kg (6년생, Y자 수형, 42주 재식)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플럼코트는 개화기간이 10일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서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인공수분을 2차례 이상 실시해야 열매 달리는 양을 유지할 수 있다.



- 플럼코트는 자두의 'Plum'과 살구의 'Apricot'의 영문 글자를 따서 이름 지어진 새로운 과종으로 새콤한 살구의 맛과 자두의 향긋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으며 항산화 물질 함량이 높은 고기능성 과수이다.
- 농촌진흥청은 2007년 플럼코트 '하모니' 품종에 이어 빨간 과육의 '티파니'와 망고를 닮은 '심포니' 3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남은영 농업연구사는 “작목 반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재배가 이뤄지는 경우 다양한 교육을 통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며, “인공 수분을 비롯한 안정적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재배를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배 과원, 석회유황합제 뿌려 초기 병원균 잡으세요

- 검은별무늬병·과피얼룩병 전염원 밀도 48.9% 이상 감소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배 검은별무늬병과 과피얼룩병 방제를 위해 3월 20일 전후에 석회유황합제로 방제하면 초기 전염원을 줄여 안정적인 병해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배 검은별무늬병균과 과피얼룩병균은 배 낙엽과 땅 위의 배나무에서 균사체나 포자 형태로 겨울을 나는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면 균체가 부식하고 황화수소 가스를 소량씩 지속적으로 방출해 살균 효과를 낸다.
- 배 검은별무늬병은 4월 하순부터 6월까지 잎과 가지, 열매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해마다 기상에 따라 10~18회 약제 방제를 하고 있다. 또한, 과피얼룩병은 9월 이후부터 열매에 발생해 저장 후에는 병반이 급속히 진전돼 유통 과정에서 배 모양을 크게 해치는 병해다.



- 이들 병원균은 3월경에 낙엽을 비롯해 나무 전체에 퍼져 있으므로 초기 전염원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 병해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이들 병원균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석회유황합제를 이용한 결과, 낙엽에 존재하는 두 병원균의 밀도가 48.9%이상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과피얼룩병균 중 낙엽과 나무에 퍼져 있는 알터나리아(Alternaria)속은 45.6, 클라도스포리움(Cladosporium)속은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 이에 석회유황합제는 월동기 배나무 병 방제에 있어 낙엽뿐만 아니라 나무에 붙은 병원균 밀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석회유황합제는 3월 20일 전·후에 한 번 뿌린 뒤 7~10일 간격으로 구리제제(코퍼설페이트베이직, 트리베이직코퍼설페이트,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를 뿌리면 배 화상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화상병은 사과나 배, 핵과류 나무에서 발생하며 꽃과 가지, 열매 등 나무 전체에 궤양이나 고사 증상을 보인다. 또, 그 피해가 파괴적이어서 국내·외적으로 검역상 중요 병해로 분류된다.
- 구리제제는 배 화상병 뿐만 아니라 검은별무늬병에 대해서도 우수한 보호효과를 갖는 약제로 인편(비늘잎)이 떨어지기 전에 뿌려야 약해를 피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송장훈 박사는 “4월이 되기 전에 석회유황합제와 구리제제를 뿌려주는 것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전염원 관리를 위해 과원 주변에 쌓인 낙엽을 묻거나 태우는 재배적인 관리를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감자 역병균 유전정보 분석... 방제·저항성 품종 육성 효율 높여

- 농촌진흥청, 와게닝겐대학과 국내 감자 역병균 유전정보 분석 완료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WUR)과 함께 국내 감자 역병균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세계 감자 역병균 분석 센터인 'EuroBlight1)'에 게시를 완료했다.
- 감자 역병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 지난해 가을에는 저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역병 발생이 많았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요 가을감자 재배지인 보성과 해남 등에서는 40~80%까지 발생했다.
- 또한,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감자 역병균의 유전적 변이로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 새로운 균주가 출현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역병균의 유전적 변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내 감자 주요 재배 지역인 강원도 평창·홍천·강릉·경남 밀양 등에서 수집한 45점에 대해 12개의 SSR2) 마커를 이용해 유전형을 분석하고 EuroBlight의 표준균주와 비교 분석했다.
- 분석 결과, 국내 감자 역병균은 네덜란드의 역병 균주인 Green-33과 비슷한 유전적 조성을 가지며,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역병 약제에 저항성이 매우 높은 Blue-13 균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Blue-13 균주는 최근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 균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 감자의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감자 역병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감자 역병균의 유전적 변이를 모니터링 해 감자 역병의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저항성 품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또한,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감자 역병에 대한 최초의 유전형 분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의 감자 역병균 분석 국제 컨소시엄(AsiaBlight)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조광수 박사는 “감자 역병은 감자 재배에 가장 치명적인 병으로 병원균에 대한 정확한 유전학적 분석이 선행돼야 효율적인 방제와 저항성 육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라며, “올해는 2014년과 2015년에 수집된 국내 감자 역병균 96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유전적 변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농가 보급형 수확후 처리 시설, GAP 인증률 제고·소득증대 한몫

- 들쭈날 GAP 단지 조성사업 농가당 연간 10% 소득증대 효과 -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가 보급형 수확 후 관리시설’로 수확 후 농산물의 위생 관리가 쉬워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도움이 되는 물론, 신선도가 향상돼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가 보급형 수확 후 관리시설을 현장에 조기 보급하기 위해 2014년 경남·북 들쭈날 주산단지 34농가에 새로운 기술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 이 지역은 안전성과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 시설이 부족해 들쭈날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고 농가가 GAP 인증을 받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 농가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GAP 인증 들깨잎은 유통업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유통망이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농가당 10% 정도인 연평균 소득이 7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농가 보급형 수확 후 관리 시설 설치 전과 비교해 작업대, 수확용기 등 수확한 들깨잎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에서 검출되는 세균수가 1/100로 주는 등 수확 후 작업환경의 위생상태가 개선돼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 관리 시설에 적용되는 예냉 기술은 들깨잎의 신선도 유지 기간을 기존의 7일보다 2배 길어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들깨잎의 유통 중 품질이 저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농가 보급형 수확 후 관리 시설’은 18m<sup>2</sup> 규모의 컨테이너에 저온창고, 냉난방기, 작업대 등을 설치한 작업공간으로, 재배면적 2,000~3,300m<sup>2</sup>의 생산규모를 가진 농가면 이용이 가능하다.
- 설치 기간이 7일 정도로 짧고 설치비용도 1,500만원으로 저렴하며, 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농가나 재배지 근처에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다.
- 농촌진흥청은 이 사업이 농업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들깨잎에서 엽채류로 확대해 ‘GAP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4개 지역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보급형 수확 후 관리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류재기 팀장은 “앞으로 GAP 단지 조성사업이 수확후 안전성 및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7. 정책 동향

### ◆ aT와 지역 거점대학, 농산물유통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 유통·마케팅, 상품화분야 전문교육 업무협약식 개최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 사장 김재수)는 3월 16일 aT농식품유통교육원(수원시 권선구 소재)에서 지난 9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경기·전남·전북·경남·경북 5개 지역 7개 농산물 유통 전문 교육기관과 농산물 유통·마케팅 분야와 상품화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위·수탁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 이번에 개최된 업무협약식은 농산물유통 전문 인력 양성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산물유통 전문교육기관'이 각 지역과 해당 분야에서 농산물 유통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인재를 육성하고 그와 더불어 취업·창업에 지원하여 해당 지역사회와 농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선정된 7개 거점 교육기관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 인력양성에 나선다. 최근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해 농산물 유통산업 전반의 외연 확대와 트렌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농산물 유통분야의 새로운 활력과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농산물유통 분야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전국 주요 지역 교육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aT 김재수 사장은 “농산물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지역별 거점대학과의 협력은 미래인재 육성과 농산물 유통분야 창업이라는 목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실시

-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지역별 묘목 축제와 묘목 유통성수기에 앞서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산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국립종자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방자치단체 종자유통조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유통조사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경북 경산·충북 옥천 등의 과수묘목 주요 생산지와 전국의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과수묘목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며,
- 또한, 유통조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관련기관(산림청)의 합동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적발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과수묘목을 구입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 간척농지 논벼 외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준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 벼 포함, 이하 '타작물')을 재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들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에는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 토양의 숙답화 기간이 필요하고, 숙답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어 연차별로 요율을 차등 적용(논벼의 1~5년차 요율은 12.7~18%임)

- 다만,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16년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 금회 임대제도 개선안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맞춰 '18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19년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

【사례1】 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 면적(100ha)중 8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2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 논벼 재배 80ha의 임대요율은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20ha는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

【사례2】 2015년도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10ha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 논벼 재배 90ha는 현행 논벼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타작물 재배 10ha에 대해서는 '16년부터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

○ 아울러, 임대 계약면적의 30%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의 30%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된 임대료는 '16년부터 적용된다.

【사례3】 201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간척농지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70%(70ha)는 논벼 재배, 나머지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

【사례4】 2015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는 논벼 재배 임대법인이 계약면적(100ha)중 30%(30ha)는 타작물 재배로, 70%(70ha)는 논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경우

⇒ 임대기간은 논벼 재배 70ha와 타작물 재배 30ha 모두 5년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8. 해외 농업정보

### ◆ 베트남서 우리 농식품 호감 지속 상승

- 한류 영향으로 베트남에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홍삼과 김치·라면·김 등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베트남 유통업계에 따르면 드라마 등 한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 농식품에 관심을 갖는 현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직 베트남 수입식품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은 아니지만, 스낵과 식품·조미료 등은 현지 시장점유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치 역시 소비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우리 농식품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은 인삼으로, 위조품이 유통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이에 원삼(뿌리)부터 캡슐, 농축액은 물론 캔디나 차까지 다양한 제품이 진출한 상황. 전문가들은 우리 홍삼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치와 김·미역도 인지도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이 식품 구입 시, 가격보다는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몸에 좋은 김치나 김·미역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 김치의 경우, 한류 영향으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효건강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대형유통매장과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입점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된 제품은 현지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프리미엄 마케팅을 통해 고소득계층을 공략해야 하며, 현지 고급 백화점과 프리미엄 하이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유통관로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김과 미역도 혈압조절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 제품의 경우 태국이나 중국산과 비교해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현지인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제품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포장에 안전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표기하거나 이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병행한다면 수출 확대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 라면도 현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색다른 우리 라면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선호하는 자장라면과 치즈라면 등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제품을 홍보한다면 마케팅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미국, 끝나지 않은 유기농시장 열풍

- 미국 소비자들은 유기농제품에 대한 꾸준한 선호를 보이고 있음.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 2017년까지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80%이상의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해 유기농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중 30%이상의 소비자들은 유기농제품 구매를 위한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
- USDA라벨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임. 그 중 70%의 소비자들은 이 라벨을 부착한 제품인 건강과 환경에 더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농장법(Farm Bill)이 통과됨에 따라 USDA는 유기농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밝혔으며 유기농 관련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유기농 관련조사 및 교육에 2,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유기농작물 보험 옵션을 확대하여 농부를 보호함. 또한 대출 및 보조금 관련 비용에 매년 1,150만 달러를 지원함.
- 미국 유기농시장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유기농식품 판매 세계적으로 720억 달러 기록

- 2014년 미국 내 유기농식품 판매 11% 증가, 시장규모는 360억 달러에 이름
  - 2014~2018년간 미국 유기농시장 연평균 14% 성장 전망
  - 미국 내 소비자, 유기농식품 구매 비율 1~5% 증가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가공식품시장은 지난 5년간 24.5% 성장하였으며, 12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 유기농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꾸준한 선호로 Whole Foods Market뿐만 아니라 Walmart, Costco 등 대형마트들의 자체 브랜드 개발 및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유기농제품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대형 식품기업들도 유기농 사업에 진출하고 있음 General Mills, Kellogg 등은 유기농식품 출시하고 있음. 또한 Nestle, CocaCola 또한 유기농 브랜드 및 관련 기업과의 인수합병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더욱 다양화될 것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3. 18.(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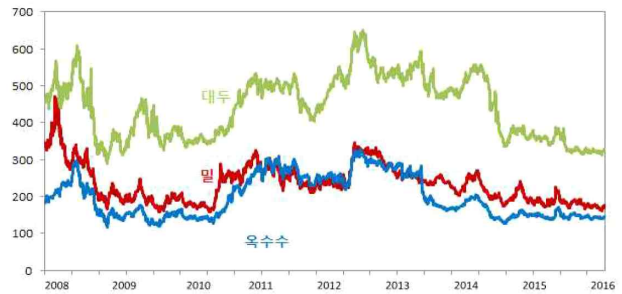
미국 재고량 증가 기대감이 곡물 선물가격 하방 압력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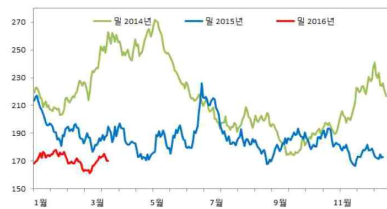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3.18)	전일대비	전월평균 ('16.2)	2015 평균
밀	170.12	▲0.1%	169	186
옥수수	144.48	▼0.4%	143	148
대두	329.73	-	320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거래 초기 하락한 후 반등하여 상승 마감하였음. 그러나 다음 주 미 평야의 기후 개선 전망으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에서 차익 실현을 위한 숏커버링세가 몰려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 달러 강세와 재고량 증가 전망으로 인해 하락하였음. 미 농무부는 3월 말 발표될 곡물재고동향 보고서에서 옥수수, 대두, 밀의 기록적인 재고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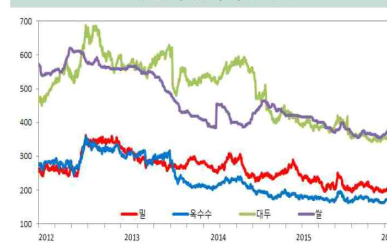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 선물가격과 마찬가지로 재고량 증가 전망으로 가격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 브라질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 수요 증가 기대감이 가격 하락을 상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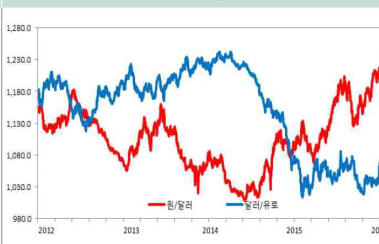
## 관련동향

- 미국산 밀 수출가격은 수출 수요 부진과 세계 공급량 증가로 하락
- 국제유가는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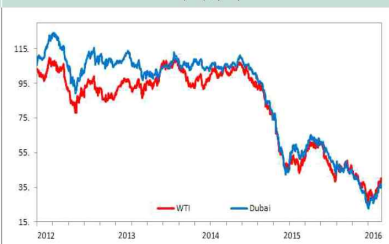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192	▼1.5%		원/달러	1,174.5	▼1.5%
	옥수수	164	▲0.6%		달러/유로	1.1318	▲0.9%
	대두	348	▲0.3%		WTI	39.44	▼1.9%
	쌀	374	▲0.3%		Dubai	37.42	▲2.0%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4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3.17(수출가격), '16.3.18(환율), '16.3.1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2015년산 콩 등 우량종자 지금 신청하세요

- 태광콩·다현녹두 등 7품종 9톤, 4월 5일까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에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콩·녹두·팥·참깨 등 하계밭작물 우량종자 9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오는 4월 5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올해 보급되는 태광·풍산나물·해품·귀눈이콩 4품종은 40kg 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고, 다현녹두·충주팥·건백참깨는 kg단위로 공급한다.
- 분양가격은 정부 보급종 가격과 도매시장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 할 예정이며,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보급종 분양가격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 장류콩인 <태광>은 우리지역에 적응된 품종으로 수량은 10a당 266kg이고, 나물콩인 <풍산나물> <해품>은 도복과 불마름병에 강한 다수확 품종이며, 다현녹두·충주팥은 병해에 강하고 수량성이 좋아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이다.
- 또한, 건백참깨·귀눈이콩·삼다찰조·황금수수·상강울무·황금기장 등 기능성 잡곡종자도 분양한다.
- 분양일정은 이달중에 시·군별로 분양 신청을 받아 내달 4월중에 분양량을 확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하게 되며, 특히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태광콩 종자는 도내 친환경 농업단지나 친환경인증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 종자관리소 위삼섭 소장은 “종자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며 이번에 분양하는 태광콩과 녹두·팥·잡곡류 종자는 국립종자원의 종자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우량종자이므로 종자갱신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한우 사육기반 확충위해 농식품부서 공모...31일까지 시군에 접수-

- 전라남도는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 공급하는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사업은 한우 사육 기반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다.
- 사업비는 축사시설 및 내부 기자재, 퇴비시설, 관리자,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에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형태로 전국 5개소를 지원하며 개소당 지원 한도는 12억원이다.
- 신청대상은 기초한우사업단 가운데 한우암소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 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사업 추진 희망자나 기관 등은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최근 홍콩으로의 한우고기 수출, 중국 내 소고기 소비량 확대, 중국 관광객들의 소고기 관심도 증가 등 국내·외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수한 혈통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유통을 통해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 농식품 분야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무인농기계(드론 등), 신재생에너지, 식물공장, 로봇, 스마트팜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31일까지 규제개혁 과제를 특별공모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공모는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농산물 품질관리원·농림수산물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식품부 15개 소속·유관기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 4-H본부 등 37개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의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하고,
- 신재생에너지, 무인농기계, 동물복지 등 신산업 분야 협회와 업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특별공모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특별공모에 우수과제를 제안한 자에게 8월 중순경 사례금을 (A등급 : 30만원, B등급 : 20만원, C등급 : 1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 특별공모는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ra.go.kr](http://www.mafra.go.kr))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http://www.better.go.kr))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페이스북·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77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